

광주·전남 체육계, 통합체육회 출범 힘 모은다

광주·전남 체육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힘을 모은다. 양 체육회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기존 체육회 해산과 청산,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잇달아 원안 의결하면서 새로운 통합 체육시대를 향한 준비도 본격화했다.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설립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양 체육회 이사회에서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의결되면서 광주·전남 체육계가 지역 체육의 미래를 위해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기존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인 통합체육회 출범에 힘을 보태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재직이사 70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체육회 출범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설립 추진상황 △광주시체육회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총목단체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등 5건을 보고받고 주



광주시체육회가 20일 오후 2시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재직이사 70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이사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양 체육회 이사회서 해산·청산 등 주요 안건 원안 의결 대승적 차원 통합 공감대…준비위 구성 등 출범 속도

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어 성공적인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구체화했다. △통합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총목단체(인정) 가입에 관한 사항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총회 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전남도체육회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재직이사 69명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이사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준비에 힘을 실었다.

전남도체육회는 △각종 제규정 제·개정 △2029년 제68회 전남도체육대회 유치신청 기간 변경 △범인 해산 △청산인선임 △청산인의 권한 및 업무범위 결정 △잔여재산 및 잔여금 처리 △통합준비

위원회 구성·운영 및 권한 위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계획 등 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양 체육회가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통합에 필요한 주요 절차에 나란히 힘을 실으면서 통합체육회 출범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양 체육회의 통합 작업은 지난달부터 구체화됐다.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 통합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통합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협의해 왔다.

통합은 기존 양 체육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체육회의 권리와 재산, 사업 등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하고 집행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향후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통합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원회는 통합 정관과 각종 규정 정비 비롯해 회원총목단체 통합, 조직·인사, 창립총회, 법인설립 인가 및 등기 등 통합체육회 출범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양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오는 27일 각각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고 통합준비위원회 규정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9월 통합체육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거쳐 10월 22일 설립 등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체육회를 이끌 초대 회장은 오는 12월 16일 전국 시·도체육회장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체육계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통합 체육시대의 밑그림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코리아컵 기세 탄 광주FC, 리그 무승 터널 탈출 ‘도전’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인천전

8강 진출로 분위기 전환…결정력 회복 등 관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첫 승의 좋은 기세를 안겨준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길어진 리그 무승 탈출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1승 8무 14패 승점 11로 리그 최하위인 12위에 머물러 있다. 반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 승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분위기는 끌어올렸다. 광주는 지난 19일 울산시민축구단과의 코리아컵 16강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3년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바 루아가 광주 입단 후 첫 골을 터뜨렸고, 이적시장 막판 합류한 김중석도 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향후 리그 운영에 힘을 보탬 가능성이 보여졌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까지 아졌다. 지난 포항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아이데일을 비롯해 김경민, 프리드슨스, 리영지, 안영규, 반 흐룬스벤, 문민서 등 직전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선수 대부분이 코리아컵에서 휴식을 취했다. 코리아컵 승리

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까지 안배한 만큼 인천전에서는 기용 전략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됐다.

승부의 관건은 결정력이다.

광주는 지난 포항과의 23라운드 홈경기에서 슈팅 21개와 유효슈팅 10개를 기록하며 끊임없이 상대 골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득점은 한 골에 그치면서 1-2로 패했다. 최근 빌드업과 공수 전환 속도가 살아나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힘이 부족하다.

코리아컵에서 승리와 득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만큼 인천전에서는 공격의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상대 인천의 흐름은 만만치 않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로 패배 없이 꾸준한 승점을 쌓고 있다. 무고사와 페리야, 제르소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격진에 이창용과 이명주 등 경험 많은 선수들까지 갖추고 있다. 다만 최근 3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치는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만



지난 19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과의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에서 광주FC 바 루아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큼 광주가 파고들 틈은 충분하다.

광주에는 인천을 상대로 한 좋은 기억도 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3-2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당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최경록과 신창무가 부상에서 돌아와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다.

무엇보다 광주에는 승점 3이 절실하다. 코리아컵에서는 8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리그에서는 지난 3월 인천전 승리 이후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컵에서 마련한 반전의 계기를 리그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전 승리가 필요하다.

광주가 다시 만난 인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의 기세를 재현하며 길었던 리그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SOOP, 아시아배구선수권 생중계

한국팀 전 경기 온라인 독점…LA올림픽 출전권 경쟁

SOOP이 2028 LA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배구 최고 무대를 생중계한다. SOOP은 아시아배구연맹(AVC)이 주최하는 ‘제23회 아시아 남녀 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대표팀 전 경기를 온라인 독점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자 대회는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남자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28 LA 올림픽과 2027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걸려 있다. 남녀 대회 우승팀은 LA 올림픽 직행 티켓을 획득하고, 각각 상위 3개 팀에는 2027 FIVB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주어진다.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여자 대표팀은 일본, 베트남, 홍콩과 C조에서 경쟁한다. 12개 참가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와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에 진출한다.

앞서 AVC 네이션스컵 정상에 올랐던 여자 대표팀은 최근 동아시아 여자배구선

수권대회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과의 한일전을 비롯한 조별리그를 시작으로 지난 대회 6위를 넘어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은 카타르, 대만, 태국과 C조에 편성됐다. 최근 동아시아선수권에서 5년 전승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대표팀은 상승세를 아시아선수권까지 이어간다는 각오다. 오는 9월 4일부터 후쿠오카에서 아시아 강호들과 LA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놓고 경쟁한다.

SOOP은 공식 중계와 함께 스트리머들의 코스트리밍(Co-Streaming)과 음원 방송도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선호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다. SOOP은 V-리그를 비롯해 FIVB 주요 국제대회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평가전, 유소년·아마추어 대회 등으로 배구 콘텐츠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6 아시아 남녀 배구선수권대회”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는 SOOP “배구중립” 방송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대 가드 조우,女프로농구 삼성생명 입단

신인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3순위 지명

광주대학교 농구부 주전 가드 조우(4년)가 용인 삼성생명의 지명을 받아 한 국여자프로농구(WKBL) 무대에 진출했다.

조우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WKBL 2026-2027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삼성생명 하상윤 감독의 선택을 받아 2라운드 3순위로 지명됐다.

조우의 프로 진출로 광주대 여자농구부는 지난해 정재현(인천 신한은행)에 이어 2년 연속 프로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지금까지 광주대 농구부가 배출한 프로선

수는 조우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특히 현재 WKBL에서 활약 중인 광주대 출신 선수는 조우를 비롯해 삼성생명 강유림, 인천 신한은행 정재현 등 3명으로 늘었다. 조우는 동문 선배인 강유림과 같은 삼성생명에서 뛰게 됐다.

국선정 광주대 농구부 감독은 “조우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폭발적인 스피드, 뛰어난 개인기를 갖춘 가드”라며 “동문 선배인 강유림과 함께 프로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전남도체육회, 유소년 선수들 지역교류 확대

대한체육회 공모 선정…2개 종목 총 5000만원 확보

전남도체육회가 야구와 축구 지역교류전을 통해 전남·광주 유소년 선수들의 실전 경험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화순군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단체경기종목 지정스포츠클럽 지역교류전(야구)”이 지난 14일부터 16

일까지 화순중학교와 이양야구장에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민간클럽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지역 간 기술 교류와 우수선수 발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공모를 통해 강진군체육회와 화순군체육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구와 야구 종목에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종목별 지역교류전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열린 화순 야구 교류전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을 비롯해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민간클럽 등 16개 팀에서 선수와 지도자 25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강진에서 축구 종목 지역교류전이 펼쳐진다.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민간클럽 등이 참가해 실전 경험을 쌓고 지역 간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교류전을 통해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다양한 팀과 경기를 치르며 실전 경험을 쌓고 서로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순 야구에 이어 강진 축구 교류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선수 발굴과 유소년 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